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TRUMP** 행정부가 지침을 백지화한 후 다양성과 포용 계획을 유지할 것을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에 지시하는 공개 서신 발표

Cuomo 주지사: “새로운 연방 정부의 조치가 입학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가 다양하고 폭넓게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Trump 행정부가 대학 입학 경쟁에 이용하는 지침을 백지화한 후 다양성과 포용 계획을 유지할 것을 H. Carl McCall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 의장 및 William C. Thompson Jr. 뉴욕시립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 의장에게 지시하는 공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인종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8월 15일까지 캠퍼스 내의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이사회 의장들에게 지시합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cCall 의장 및 Thompson 의장 귀하,

대학 입학 경쟁에 이용하는 지침을 백지화하고 있는 Trump 행정부의 움직임은 소수 민족의 고등 교육 참여를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소수 민족을 소외시키고 사회의 다양성과 동등한 참여를 막는 장벽을 쌓는 일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문제가 되는 추세의 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1978년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생감 대 Bakke(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부터 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의 Fisher 대 텍사스 대학교(Fisher V. University of Texas)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성이 고등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뉴욕의 두 대학교 시스템은 오랫동안 다양성의 보루이자 사회적 유동성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SUNY)는 학생 수의 약 45 퍼센트가 소수계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는 76 퍼센트가 소수계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이해를 넓히고 장벽과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주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성 및 포용 계획을 지속할 것을 지시합니다. 새로운 연방 정부의 조치가 입학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가 다양하고 폭넓게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이 계획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뉴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계획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는 2018년 8월 15일까지 우리 캠퍼스들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하고 증진할 것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Trump 행정부는 이 나라를 퇴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은 계속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유동성의 장벽을 해체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확대해 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